

DIVE INTO

문체부·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
우제길·강운·이이남·김상연
이매리·임용현 작가 작업실 방문
4월3~7일...광주비엔날레 관람도



우제길



강운



이이남



이매리

해외 미술계 인사들, 광주 작가를 주목하다

미술관 관장, 큐레이터 등 해외 미술계 인사들이 광주 작가들의 작업실을 방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맞아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을 주목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이다.

국내 미술시장 규모 1조원 돌파, 젊은 컬렉터들의 급부상, 키워프-프리즈 서울 공동개최 등으로 세계 미술계가 한국 미술시장과 한국 작가를 주목하고 있다. 예경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깊이 있게 소개하고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미술계 전문가들을 초청, 'Dive into Korean Art' 행사를 진행해왔다.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서울 지역 11명의 작가 작업실 방문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올해는 광주를 주목한다. '2023 Dive into Korean Art:Gwangju'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미술계 주요 인사 8명을 한국으로 초청, 광주 지역 작가 6명의 작업실을 방문한다. 예경은 광주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협력해 작가를 선정했다.

4월 3일부터 6일까지 총 4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우제길·강운·이이남·김상연·이매리·임용현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하고 광주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김상연



임용현



라파엣 픽

비엔날레를 관람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미술계 관계자는 리첸 대만 태복당 대예술관 관장, 피리 홍콩 타이쿤 컨템포러리 뮤지엄 예술 부문 대표, 숭상 산파치라피반 방콕 아트 앤 컬처 센터 학예부장, 라파엣 픽 프랑스 예술전문잡지 편집장 등 8명이다.

첫날에는 구름 작업을 거쳐 '마음산책' 시리즈 작업을 하는 강운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한다. 강 작가는 작업실 내 전시실, 유화-텍스트 작업실, 수장고를 개방한다. 이매리 작가는 자전적 존재와 실존의 문제에 대한 초창기 작업부터 이를 인류학적, 역사적 관점으로 확장해온 최근 작업 과정까지 작업 연대기를 소개한다.

이이남 작가는 당대의 고전 회화를 현대적인 관점과 이슈, 문화들을 접목해 재해석한 초기 작품부터 최신작까지 폭넓은 작품세계를 소개하며 이이남 스튜디오로 관계자들을 초대할 예정이다.

4일에는 수인 판화, 흑백 회화, 설치 등 다양한 장르

를 아우르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상연 작가의 작업실을 찾는다. 김 작가는 최근 환경 등 사회 문제와 연결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빛의 화가'로 불리는 우제길 작가의 작업실이자 미술관인 우제길 미술관에서는 1955년부터 현재까지 우제길 작가의 방대한 아카이브와 수장고를 만난다.

이외 광주시립미술관을 방문, 제주 4·3 특별전으로 개최되는 '박경훈 : '4·3 기억·투쟁, 새김과 그림'과 광주 5·18을 소재로 한 중진 작가 초대전 '김호석: 검은 먹한 점'을 관람하며 한국 미술 전반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간다.

5일에는 프로젝트매핑, 인터랙티브작업, 홀로그램 영상, 라이브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임용현 작가를 찾는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 건축 및 전시 '사유정원', '원초적 비디오 분석' 등을 관람하고 작가들간의 네트워킹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날에는 광주 우봉동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광주박물관 등에서 열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파트에 스민 예술...공동체 문화를 만들다

계림아이파크SK뷰 '인문예술파티' 전시회·음악회·강연·커피 강습 등

아파트 광장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미디어 아트를 만날 수 있는 대형 큐브. 이수진 작가의 '그 너머의 공간으로의 초대'와 스튜디오 W.BABA가 제작한 아기자기한 캐릭터가 주인공인 작품이 상영 중이다.

미디어아티스트 문창환 작가의 작품 '조립된 풍경화'가 화려하게 펼쳐지는 아파트 입구 대형 미디어 월(30×3.5m)도 눈길을 끌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들이 아파트라는 생활 속 공간으로 스며들어 만들어진 풍경이다.

계림아이파크 SK뷰에서는 지난 25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전시회, 음악회, 인문학 강연, 커피 강습 등 다양한 행사가 어우러진 'ON 동네방네 인문예술파티'다.

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해 동네 주민 3000여명이 함께 한 이날 행사는 삭막한, 단절, 개인주의로 대변되는 아파트 문화가 '문화 예술'을 통해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고, 문화예술로 하나가 되면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냈다.

지난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이파크 SK뷰 아파트는 1715세대다. 입주자들은 화정동 아이파크 참가가 야기한 문제들로 입주까지 마음의 상처가 깊었고, 예비모임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감시 등을 지속해왔다. 입주 후에는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문화·예술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발품을 팔며 각계각층에 도움을 요청했다.

주민들의 제안에 공무원, 각 분야 전문가들이 화답해 TF팀이 만들어졌고 매주 모임을 통해 프로그램을 고민, '광주아트트리빙기획단'이 꾸려져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들은 사람들의 주춧돌인 아파트가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계림아이파크 SK뷰 미술관에서 열리는 '할아버지의 컬렉션' 전.



25일 계림아이파크 SK뷰에서 열린 'ON 동네방네 인문예술파티'.

가길 바랬고, 이런 분위기가 광주 전역의 아파트로 퍼져 나가길 기대하는 마음에 재능기부로 힘을 보탤다.

아파트 안에는 독특하게 미술관이 있다. '할아버지의 컬렉션' (4월30일까지)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광주시 동구 주민인 윤효준씨가 평생 수집한 작품 190여점 중 주민 도슨트 12명이 고른 60여점을 선

보이고 있다. 오승우·오승운·강연규·황영성·하철경·한희원·김병준·김종욱·조운성 작가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감사'를 주제로 송준용 교수의 인문학 강의 열렸으며 클래식, 대중가요, 크로스오버 앙상블 연주가 어우러진 '봄의 왈츠 콘서트-행복한 마을'도 개최됐다. 그밖에 동명동 커피집 '물고기' 김현오 대표가 진행한 드립커피 강의와 시연도 마련됐으며 동구 주민들이 참여해 'ON 동네방네 안에 피어오른 봄'을 주제로 열렸던 시 백일장 시상식도 열렸다.

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4월13일에는 이번 행사에서 캐릭터를 제공한 스튜디오 W.BABA 캐릭터 입주식을 진행하며 5월 문화축제, 크리스마스 축제 등 지속적으로 행사를 이어간다.

또 미술관을 활발히 운영하고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과 연계해 미디어월 등에서 꾸준히 미디어아트 작품도 상영할 계획이다.

강제훈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처음 하는 일이라 모두가 힘들기는 했지만 입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며 "무엇보다 저희 아파트 행사가 좋은 선례가 돼 다른 아파트에서도 문화예술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자리하는 새로운 아파트문화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언론인 김석학을 기억하다

유고집 '앞이 보이는 세상' 4월 9일 출판기념회

전 광주일보 문화부장
신문 연재 '광복 30년'
값진 역사 기록물 평가



김석학

시대의 어둠을 밝혀온 언론인을 추모하는 출판기념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김석학(1941~2022) 전 광주일보 문화부장의 칼럼집 '앞이 보이는 세상'의 출판기념회가 오는 4월 9일 낮 12시 무등산 관광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광주고 9회 동문들과 유족들이 주축이 돼 열리며 고인의 시 낭독, 유고 칼럼 낭독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오랜 친구인 문순태 소설가에 따르면 고인은 고교 시절 시를 쓰는 문학소년이었다. 고 이성부 시인, 지학사 윤재성 사장, 문순태 작가와 광고문예부 4인방으로 지낼 만큼 돈독한 우정을 쌓았으며 '광고시집' 발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고인이 언론인 시절 전남일보에 해방공간에서 6·25 비극까지 우리 지역이 겪었던 역사적 부침을 6년에 걸쳐 취재 연재한 '광복 30년'은 값진 역사 기록물로 평가받는다. 모두 5권으로 발행된 책은 광주·전남 근대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빛나는 업적 가운데 하나다.

언론인 김석학은 지난 1941년 고향의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났다. 보성독량중학교를 졸업하고 1957년 광주고에 입학했다. 이후 성균관대 영문과를 졸업한 그는 1965년 광주일보 전신인 옛전남일보에 공채 입사했다.

그는 시를 쓰는 대신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기사를 쓰는 일에 매진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혔던 군사독재 시절, '시를 쓰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한 그는 펜으로 독재와 맞서 진실된 역사의 기록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

이다. 그러나 얼마 후 시련이 닥쳐왔다.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섰던 그는 80년 8월 반체제 기자로 몰려 해직이 되고 만다. 이후 한동안 침잠의 시기를 겪었지만 내면에는 늘 언론에 대한 열정과 군부독재를 질타하는 울컥하는 목소리가 잠재고 있었다.

훗날 무등일보가 창간되면서 논설위원이 된 그의 필봉은 더욱 예리해졌다. 전남일보 사회부기자에서 출발해 논설위원과 무등일보 수석논설위원 등을 거치며 30여 년 그가 쓴 '사설'과 '세상만사', '토요아침'은 모순된 사회를 예리하게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해 독자들로부터 공감의 감재를 받았다.

문순태 소설가는 "그는 소년처럼 순수하고 선비처럼 울고고 시인처럼 감성적인 언론인이었다. 유고집에 담긴 주옥같은 글을 통해 고인의 지역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세상을 보는 정의롭고 울컥하는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록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아름다운 삶의 정신이 오래 기억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으로는 미망인 주희자 여사와 명화·정화 두 딸이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지맵, '청소년 미디어아트 예술영재 프로그램' 진행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은 광주예술중학교부설 예술영재교육원과 함께 미디어아트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미디어아트 예술영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월부터 12월까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퓨처랩(지하 1층)에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습은 미디어아트 전문가 7명이 맡아 '미디어아트 이론 및 매체 매커니즘 이해하기', '미디어에 활용되는 음향 기술 기초',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미디어아트 현장

탐방도 예정돼 있으며, 과정 종료 후 결과물들은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G.MAP 전시실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예술영재교육원은 지난 1월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참여 대상자를 모집, 실기와 면접을 거쳐 최종 9명을 선발했다.

한편 G.MAP과 예술영재교육원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양 기관 상호협력 협약을 통한 미디어아트 인재양성 및 광주시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시민오케스트라' 단원 모집...4월7일까지 접수

'ACC 시민오케스트라'는 지역 음악인들이 연주자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장을 제공하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을 만큼 인기가 많다.

올해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 재)은 'ACC 시민오케스트라'에 참여할 단원을 모집한다.

특히 성인 아마추어 음악인 중심이었던 단원을 올해는 초등 4학년 이상으로 연령을 크게 낮췄다. 또한 누구나 오케스트라 무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존 75명에서 올해 170명으로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모집은 오는 4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누리집 참조.

서류 심사사 오디션(3분 자유곡 연주)

을 거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13개 분야에서 단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단원들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매주 토요일) 전문 강사의 지도로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오는 10월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시민오케스트라 연주회 무대를 펼치게 된다.

한편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ACC 시민오케스트라를 매개로 많은 시민들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연주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ACC재단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